

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

보도자료 Press Release



배포일시	2016. 12. 16.(금) 10:00 (총 3대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	담당자	과 장 박 종 서
		전화번호	070-7850-8336

**수도권 평균기온 상승, 여름 강수량 증가**

- 폭염·열대야 심화 도시 수원, 수원이 뜨거워지고 있다.
- 수도권기상청, 「데이터로 보는 수도권의 기후변화」 발간

- 수도권기상청(청장 양진관)은 최근 기후 변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및 기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기후 변화의 지역적 영향 차이로 나타나는 지역별 기후 변화를 파악하여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「데이터로 보는 수도권의 기후변화」를 발간하였다.
- 이번 자료집은 관측 이래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기후 특성 및 기후변화 경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측 지점별로 수록하였다.
- 197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의 연평균기온은 1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3.4℃ 증가하였으며, 지역별로는 수원이 5.0℃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. 또한, 연간 폭염일수는 4.7일, 연간 열대야일수는 16.4일 증가하여 기온의 증가가 뚜렷하였다.
- 평균기온은 1970년대 11.3℃에서 2010년대에 12.2℃로 0.9℃ 상승하였다. 평균기온의 상승률은 가을철이 4.6℃로 가장 크고, 여름철이 2.6℃로 가장 적었다.



- 지역별 폭염일수는 수원이 2010년대 평균 11.6일로 1973~2015년 평균보다 5.0일 더 많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, 열대야일수는 서울이 2010년대 평균 13.0일로 1973~2015년 평균보다 4.7일 더 많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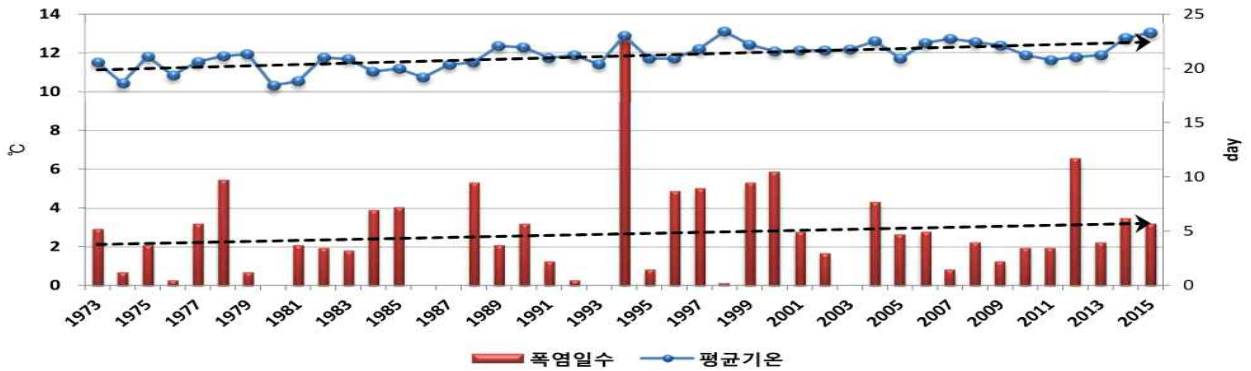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연별 평균기온(°C) 및 폭염일수(일)

- 연강수량의 변화율은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59.2mm로 증가하는 경향이나 연도별 변동폭이 큰 편이며, 연강수일수 및 집중호우일수도 각각 1.3일/10년과 0.3일/10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.

- 연강수량의 변화율은 여름철에 55.5mm/10년으로 상승하나, 봄철에는 9.7mm/10년으로 감소하여 계절별 변동폭이 크다.
- 연 강수일수는 서울이 1.8일/10년으로 가장 컸고, 수원이 0.8일/10년으로 가장 적었다. 집중호우일수는 수원이 2010년대 평균 3.6일로 1973~2015년 평균보다 1.4일 더 많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, 강화의 경우 2010년대 평균 1.8일로 1973~2015년 평균보다 0.6일 적어 집중호우일수가 감소하였다.

※ 집중호우일수: 시간당 30mm 이상 강수의 일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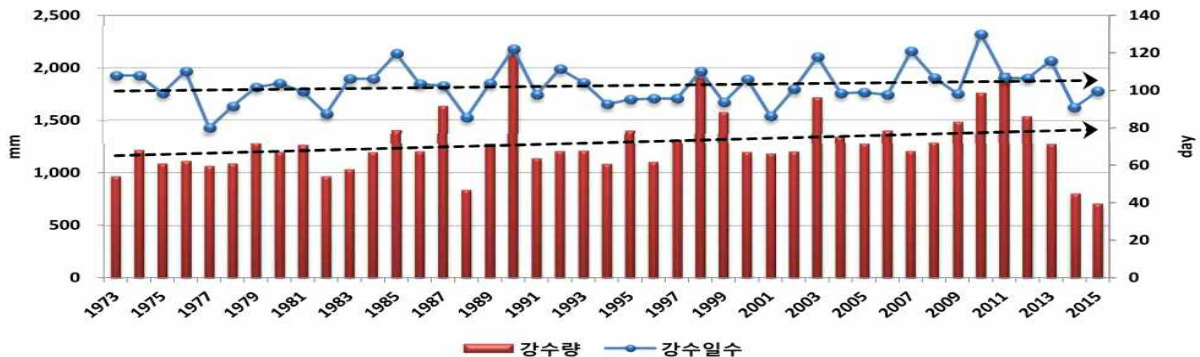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연별 강수량(mm) 및 강수일수(일)

- 연평균습도의 변화율은 14.5%/100년으로 장기적인 감소 경향이며, 최저습도 20% 미만 일수는 53.8일/100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.
- 연평균습도의 감소는 겨울철이 19.8%로 가장 크고, 여름철이 7.8%로 가장 적다. 최저습도 20% 미만 일수의 증가는 봄철에 30.6일로 가장 크고, 여름철에 1.8일로 가장 적다.
- 최저습도 20% 미만 일수의 수도권 평균값은 13.2일로 서울이 18.0일로 가장 많았고, 인천이 6.6일로 가장 적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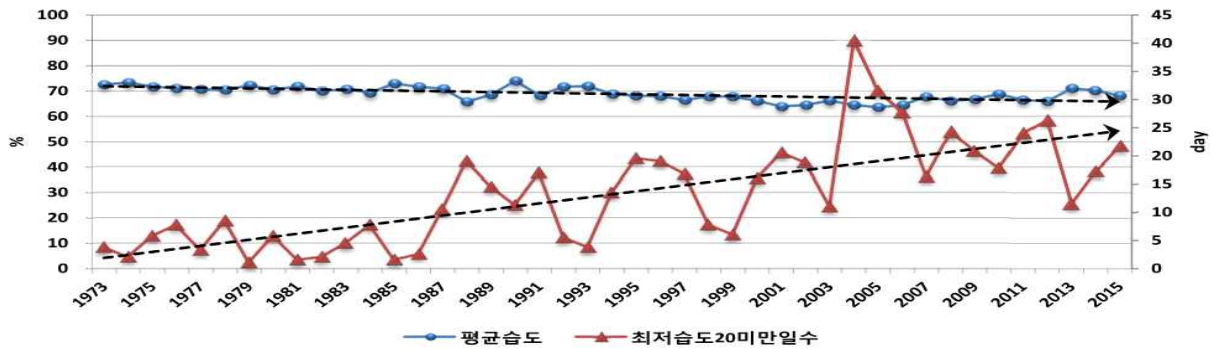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연별 평균습도(%) 및 최저습도 20% 미만 일수(일)

- 연평균풍속은 계절적·지역적 변동폭이 크나, 연최대풍속은 6.6m/s/100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.
- 연최대풍속은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가장 크게 감소하며, 지역별로는 인천이 14.6m/s/100년으로 감소율이 가장 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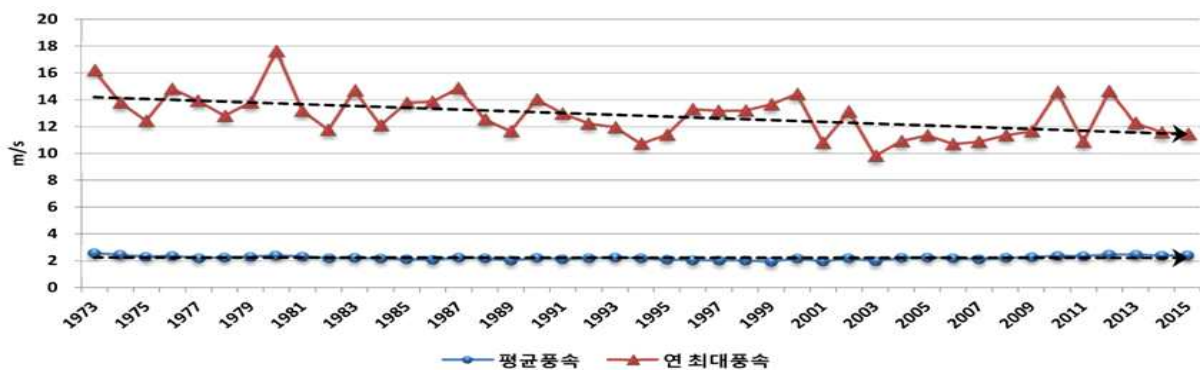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연별 평균풍속 및 연최대풍속(m/s)

- 수도권기상청은 이번에 분석된 내용이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과 지역 기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적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.